Thailand
방콕 지사

태국, 배달 주문 증가로 식품 배달 앱 간의 경쟁 치열

350억 바트 규모의 식품 배달 앱 시장에 신규 업체 진입이 잇따르면서 업체 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GrabFood, Get, Line Man 그리고 Foodpanda 가 현재 태국 식품 배달 시장에서 주요 업체들이다. SCB 은행도 최근 Robinhood 라는 식품 배달 앱을 출시하였고 더 많은 경쟁사들이 배달 앱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배달 앱 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Robinhood는 업체들과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가입 업체들로부터 매출 수수료 면제 등을 내세우며 식품 배달 앱 시장에서 신규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Kasikorn Research Center(K-Research)의 Anantaporn Lapsakkarn 연구원은 Bangkok Post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업체들의 진출로 인해 기존 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여러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식품 배달 앱 시장 내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 밝혔다.

K-Research는 지난해 350억 바트 규모의 식품 배달 시장에서 17% 성장을 예상했으나 최근에는 19~21%까지 성장하리라 전망치를 수정했다. Ananatapron 씨는 "식품 배달업계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프로모션과 저렴한 배송비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배달음식에 대한 메뉴 선택권을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배송비를 요구하는 업체가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것"이라 언급했다.

출처 : Bangkok Post

태국의 IT 리서치 업체인 IDC Thailand 의 리서치 매니저 Weeradej Panichwisai 씨는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식품 배달 시장의 경쟁은 가열될 것이라 말하며 향후 시장에서 살아남는 업체는 한 두 군데 업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운영 자금 부분에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여유가 있는 업체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Weeradej 씨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성장 중인 식품 주문 앱 수요는 태국이 한참 우기로 접어든 상황인 만큼 더욱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태국 온라인 물류 업체 Shippop 의 대표인 Sutthikead Chantarachairoj 씨는 "현재 식품 주문 앱 사용은 치앙마이나 푸켓과 같은 지방에서 특히 그 수요가 크다"고 말했다.

이렇게 증가하는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음식 주문 플랫폼인 hiw.asia 웹사이트는 Popman 배달 서비스 앱과 함께 등장했다. Robinhood 앱과 제휴하는 배달 서비스 제공업체인 Skootar 의 CEO Kamolprudh Jumbala 는 식품 배달 시장에서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배달 서비스 업체들이 가입된 업체를 상대로 총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고 고객들에게 낮은 배송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배송비가 저렴한 프로모션에 참가하려면 업체들이 추가 요금은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이 뜨거운 만큼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 뿐 아니라 여러 전략으로 소비자들이 만족을 느끼게 해야할 것이다.

Key Point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소비자들이 외식보다 집에서 배달 음식을 선호하면서 식품 배달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업체들이 계속하여 생겨나고 있다. 기존 업체들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이기기 위하여 여러 가격 할인이나 배송료를 깎아주는 등 여러 프로모션에 따라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식품 배달 업체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한 음식의 종류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집에서 배달 음식으로도 외식 할 때와 같이 여러 선택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앱들이 제공하고 있는 배달 기사 위치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앱에서 언급하는 배달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됨은 물론 고객 불만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고객관리 전용 직원들의 응대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태국 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계속 더 식품 배달 시장의 성장을 예상한 만큼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즐겨 먹지만 아직은 양식이나 일식처럼 태국인의 일상에 녹아들지는 않았다. 현재 여러 한국 드라마로 인해 태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니만큼 식품 배달 업체를 통해 많은 한식 메뉴가 태국인들에게 다가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배달 앱과 연계한 다양한 한식 메뉴, 한국식품에 대한 홍보 추진 등도 단기간 많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1932164/new-food-delivery-apps-seeking-a-bite